

국내의 텔레매틱스 표준화 동향 분석 및 산업 활성화를 위한 표준화 전략

이혜진, 김기훈, 박애란, 구경철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hjlee@tta.or.kr channel@tta.or.kr arpark@tta.or.kr keekoo@tta.or.kr

A Study on Current Status of Global Telematics Standardizations and Standardization Strategies for Promoting Telematics Industry

Lee Hyejin Kim Kihoon Park Aeran Koo Kyungcheol
Telecommunications Technology Association

요 약

텔레매틱스(Telematics)는 통신(Telecommunication)과 정보(Informatics)가 합쳐진 합성어로 국내에서는 정부와 사업자측면에서 산업을 키우기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벌이고 있다. 현재 텔레매틱스 산업은 초기단계로,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 개발을 위주로 진행하고 있어 표준화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하지만 향후 발전된 기술이 개발되었을 때 호환성과 확장성 측면이 가장 중요하므로 초기단계부터 이러한 부분을 고려한 장기적인 안목의 표준화가 선결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본 고에서는 OSGi, MOST, ITU-T(APSC)의 해외 표준화 기구의 활동현황을 파악하고 국내 텔레매틱스 관련 표준화 기구의 현황을 파악한 후 텔레매틱스 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표준화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I. 서 론

다양한 산업이 복합된 컨버전스 산업인 텔레매틱스는 그 발전 가능성을 알아본 정부가 국민소득 2만 불을 건인할 정책인 u-IT839 중 하나로 채택, 체계적으로 산업을 키워나가고 있다. 우리나라는 잘 구축된 네트워크 인프라와 세계에서 인정받는 자동차 산업, 높은 수준의 정보화 마인드로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텔레매틱스 산업을 장려하기에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환경 하에 2003년부터 시작하여 최근 구축이 완료된 텔레매틱스 정보센터(TELIC), 제주도 시범도시 구축 사업 등 가시적인 결과가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텔레매틱스 산업은 급물살을 타고 있다.

하지만 텔레매틱스 사업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서는 선행되어야 할 과제가 있으니, 텔레매틱스 표준화 작업이 바로 그것이다.

텔레매틱스는 2001년 민간기업 부문에서 상용화된 이래로 각 기업들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서비스를 고객들에게 제공하여 지금에 이르게 되었다. 그로인해 독자적 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중심으로 시장을 분할점유하고 있어 시장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고객들은 호환성이 결여된 서비스를 제공받게 되므로 서비스 이용에 있어 제약이 따르는 불편함을 겪고 있다.

또한 공공부문에서도 교통정보의 생성 및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 한국도로공사, 경찰청, 각 지방자치단체 교통정보센터들 간의 교통정보도 각기 다른 형태로 수집,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정보

의 공유가 용이하지 않다.

현재 국외에서는 텔레매틱스 관련 표준화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어 민간단체들을 중심으로 한 표준화가 진행되고 있으나, 국내는 표준화 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업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텔레매틱스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표준화가 시급하다고 할 수 있겠다.

본 고에서는 성공적인 텔레매틱스 표준화 활동을 위하여 국내 텔레매틱스 시장 현황을 살펴보고 대표적인 해외 텔레매틱스 표준화 단체인 OSGi, MOST, ITU-T(APSC)의 활동과 국내 표준화 단체 활동에 대해 파악한 후 시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표준화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국내 텔레매틱스 시장 현황 및 발전 장애요인

국내 텔레매틱스 서비스는 2001년 11월 대우 자동차의 드림넷 서비스를 시작으로 국내에서 개시되어 현재 시장 개화기 상태로 Before Market(이하 BM)과 After Market(이하 AM)으로 구분하여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BM은 차량 출고 시 텔레매틱스 서비스가 가능한 단말기가 차량에 내장된 형태로 주로 고급차의 고객관계관리(VRM: Vehicle Relationship Management) 차원에서 완성차 메이커가 주도하고 있다. 현대·기아자동차의 Mozen, 쌍용자동차의 Ever Way, 르